

포켓型 컴퓨터 時代

金 貞 欽

高麗大教授·物理學

한글 풀어쓰기와 漢字處理

흥미진진이라 할 때 「진진」은 漢字로 어떻게 썼드라? 요새는 健忘症이 심해서 그런지 漢字가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래서 포켓에서 電子 漢字辭典을 끄집어내어 「키이」를 누른다. 한글 풀어쓰기로,

「ㅎ-ㅇㅁㅣㅅㅣㄴㅅㅣㄴ」

이라 찍어 나가는데 따라 表示板에는 차례로

ㅎ→호→흥→흙→흥미→흥밋→흥미지 →

흥미진→흥미진→흥미진지→흥미진진

으로 글자가 나타난다. 풀어쓰기로 키이를 눌러도 電子辭典은 우리 한글말의 특성을 알아차려 이렇게 「흥미진진」이라 모아쓰기로 고쳐준다. 즉 우리 한글은 글字 시작이 받침시(子音)+(母音)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ㅎ-ㅇㅁ」까지 치면 「흙」이라는 妙한 한글이 일단 찍혀 나온다. 이것은 電子辭典의 判斷 裝置에 모든 子音은 첫 글자를 제외하고는 우선 「받침」으로 써가라는 命令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ㅣ」의 단추를 누르면

「흙ㅣ」

가 된다. 母音은 받침으로 쓰일 수 없으므로 다음 글자의 中聲으로만 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ㅣ」라는 글字는 單獨으로는 中聲의 役割을 할 수 없으므로 그 순간에 電子辭典의 CPU (中央演算裝置)는 「흙」字의 마지막 받침인 「ㅁ」자가 다음 글字의 初聲이 됨을 判斷하고 즉 각적으로

「흥미」

로 바꾸어준다.

이런 요령에 의해 사용자가 한글 풀어쓰기로 단추를 눌러가기만 하면 表示板에는,

「흥미진진」

이란 글이 表示되어 나온다. 이 方法은 오래전 全南大 宋 啓範教授가 考案해낸 方法으로써 現在는 거의 모든 컴퓨터가 이 方法을 使用해서 한글을 入力시키고 있다.

漢子電子辭典

다음은 漢字 轉換이다. 漢字전환 단추를 누른다. 그러자 表示板에는 綠色의 鮮명한 글字로 「興味津津」

이라 크고 뚜렷한 漢字가 나타난다. 옹지! 흥미진진의 진진은 「津」字를 두개 썼구나!

「津津」이란 漢字를 찾아낸 나는 무슨 큰 숙제나 해 낸듯이 一種의 成就感에 잠겨 滿足感을 느끼곤 한다.

漢字辭典이 나와 漢字쓰기가 매우 便利해졌다. 한동안 漢字는 컴퓨터處理가 안되는 것으로 착각이 된 일이 있었지만 LSI의 機能이 매해같이 거의 2배씩으로 늘어나고, 記憶容量이나 情報處理能力이 늘어나는데 따라 漢字처리는 한글處理와 거의 비슷한 정도로 技術이 늘어났다.

한글발음→漢字 전환의 漢字辭典 뿐만 아니라 2001年 現在 漢字玉篇도 나와 있다. 漢字를 구성하는 235個의 部首를 劃別로 찾아내고, 特定 部首, 例컨데 6劃의 「舟」변의 14劃 漢字인 「艦」字를 찾으려면 部首단추 6을 누르면 6劃

으로 된 部首 29個가 그 番号와 함께 表示板에 나타난다. 즉 (1) 竹, (2) 米, (3) 糸, …… (20) 舟 …… (29) 兩 등 6 劃으로 된 29個의 部首 중에서 必要로 하는 것은 (20)의 舟임으로 단추 20을 누르면 舟변의 漢字가 나온다. 艦字는 舟변에 14 劃이 다시 추가되므로 14라 누르면 (이 辭典에서는 漢字数 3,000個가 포함돼 있으므로 14회의 글자는 艦字 하나뿐임) 艦字가 나온다. 같은 劃의 漢字가 여러개가 있을 때는 다시 번호가 붙어 나와 그 번호를 누르면

「艦. 싸움배, 함」

과 같이 찾고자하는 漢字가 나와 읽기와 그 음이 나오게 된다.

더 나아가 熟語단추를 누르면

(1) 艦隊 (2) 艦橋 (3) 艦上 (4) 艦尾 (5) 艦長 (6) 艦砲 등이 나온다. 그래서 (6)을 누르면

「艦砲 : 군함에 장치한 화포」

라 풀이가 나온다.

워드프로세서

漢字辭典에 앞서서 실은 이미 1990年代에 國漢英 混用 워드 프로세서 (Word processor) 가 나와서 活動中에 있다. 워드 프로세서란 文書情報處理機이다. 쉽게 말해

(孔版打字機) + (修正機能) + (編輯機能) + (記憶機能) + (速打複寫機能)

등이 습친 機械라 보면 된다. 國漢英 混用文을 쉽게 칠수 있고, 文章의 修正이 可能하다. 例컨데 在來의 타이프라이터에서는 2字 削除 10字 挿入이 必要할 때는 2字를 먼저 지우개로 지우고 쳐놓고 나머지 $(10-2) = 8$ 字를 2行 사이의 틈새에 처넣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行間에 글자를 처넣는 것은 公文書로서는 許容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結局 타이프紙를 갈아끼우는 수밖에는 方法이 없었다. 그러나 워드 프로세서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종류의 修正이 可能하다. 워드 프로세서에서는 文章이 일단 소프트카피 (Soft copy), 즉 CRT(부라운관을 뜻하는 Cathode Ray Tube 表示板)에 나타나고 하드 카피 (Hard copy)는 나중에 文章을 다 쓰고, 修正할대로 修正을 끝마친 후에 프린터로 찍게 되

기 때문이다.

또 一定한 文句나 文章 또는 書式은 記憶해 두었다가 단추하나로 CRT画面에 불러낼 수가 있다.

行間의 간격을 넓히고, 一行內에 들어갈 字数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題目을 中間에 가져오게 하는 센터링機能도 단추하나로 發揮된다. 또 橫書를 縱書로, 중서를 횡서로도 단추하나로 순식간에 바꾸어 쓸 수가 있다.

이런 워드 프로세서는 会社 事務室에서 旧式 타이프라이터를 몰아내고, 2001年 現在는 學生들이나 教授들도 個人用으로 購入해서 쓰고 있다.

또 앞으로 數年以內로 初·中·高校에서도 各級學校의 水準에 알맞는 워드 프로세서가 導入될 段階에 이르고 있다. 特히 初·中學校에서는 義務教育의 일환으로 모든 學校가 2003년부터 6個年 計劃으로 全學年이 노트북과 더불어 워드 프로세서를 併用케 할 計劃을 세우고 있다.

퍼스널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컴퓨터 또는 퍼스널컴퓨터에도 워드 프로세서와 거의 비슷한 機能이 주어지고 있어 2001年 現在는 퍼스널컴퓨터와 워드 프로세서는 서로의 機能이 습쳐져 거의 一體가 되어가고 있다. 特히 미니 플로피디스크 (Mini floppydisk)의 性能이 發展되어 가는데 따라 直径 20cm의 얇다란 플로피디스크에 貯藏해둘 수 있는 文字數도 200萬字를 넘게 되어 플로피디스크만 바꾸어 끼면 3000字의 漢字를 벗어나 數萬字의 漢字處理도 可能한 時代가 되었다.

또 퍼스널 컴퓨터는 學習機로도 使用되고 있다. 代數면 代數, 東洋史면 東洋史에 관한 미니 플로피디스크를 구입해서 퍼스널 컴퓨터에 꽂기만 하면 웬만한 숙제의 答은 다 찾아낼 수도 있게 되었다.

또 學校에서는 담임선생이 全學年의 成績一覽表를 기억시켜둔 미니 플로피디스크를 갖고 있어 學父兄이나 學生自身들이 찾아와 어느 人學

으로 進學할 것이며 어떤 學問分野 또는 職業分野로 進出하는 것이 좋은가를 물어오면 즉석에서 그 學生의 成績一覽, 그 學生의 例컨데 國語成績이 클라스에서 上位圈이나 中位圈이나 또는 下位圈이나를 단추 하나로 나타나게 해서 評價分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 成績比較는 그래프와 數表 어느쪽으로도 나타내어 줄 수가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담임 선생은 學生과의 對話, 클라스에서의 관찰 사항등을 수시로 記錄해 두었다가 一定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따라 그 學生의 適性까지도 나타내어 줄 수가 있다. 다만 이 適性檢査는 學者에 따라 그 判定基準이 다르므로 △△△式 適性檢査라던가 ○○○式 適性檢査 등 使用한 公式이나 方式을 表示해 주기로 되어 있다. 아무리 컴퓨터라도 適性檢査와 같이 多分히 檢査者의 主觀이 介在하는 分析이나 評價는 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도 在來와 같이 담임선생이 주먹구구로 하는 結論보다는 컴퓨터의 도움을 받는 이런 適性檢査는 상당한 신빙성을 갖고 있어 學父兄間에서는 상당한 人氣를 끌고 있다.

포켓형 컴퓨터와 손목형 컴퓨터

어느 時代건 機械가 하나 생기면 될수록 그것을 얇게 하거나 작게해서 손목에 차거나 포켓에 넣고 다니고 싶은 생각이 든다.

時計는 그 가장 代表的인 例였고, 이어서 라디오가 그랬고, 1980年代에는 黑白TV가, 그리고 1990年代에는 天然色TV 겸 無線電話 장치가 그런 패턴을 밟아왔다.

그리고 2000年代에 들어와서는 퍼스널 컴퓨터도 小型化될 대로 小型化해서 簡易型은 손목 컴퓨터로, 實用型은 포켓형 또는 007 가방형으

로 商品化가 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小型化하더라도 라디오의 경우는 스피커의 크기가 限界線을 그어주고, TV의 경우에는 画面의 크기가 限界를 그어주어 더 이상 작게 만들 수 없는 物理적 限界를 規定지어 준다.

例컨데 TV를 작게 만든다 해서 画面을 손톱 크기보다도 작게 만들 수야 있겠지만 그것을 보려면 擴大鏡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画面이 손톱크기정도의 TV란 난센스의 產物이 된다. 또 라디오는 스피커가 작으면 低音이 전연 나오지 않아 포켓형만 되어도 高忠實한 HiFi製品은 原理上 제작이 不可能하다. 이어폰(Earphone)이 있기는 하나 귀에 꽂고 쓰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不便하다. 따라서 가락지 라디오를 만들수야 있겠지만 實用性은 없다.

마찬가지로 손목형 컴퓨터가 나오긴 했어도 特殊用(例컨데 登山家用)으로만 쓰여질 뿐 크게 流行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CRT画面이 너무 작아 글자나 數字를 읽기가 매우 힘들고, 또 단추도 작아서 入力때는 손가락을 쓸수 없고 볼펜이나 연필 끝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점에서 007 가방형은 뚜껑을 열어제치면 뚜껑이 CRT画面이 되고 가방내부에 入力裝置가 있어 보통의 타이프라이터 정도의 鍵盤面을 갖고있기 때문에 實用性이 높다.

이들 두 中間에 포켓형이 있지만, 이 포켓형도 實用面에서는 크기가 너무 작아 不便하다 한다. 단지 쉽게 포켓(포켓이라 하지만 上衣의 큰 포켓)에 넣고 다닐 수 있어 保險勸誘員 이라던가 세일즈맨, 그리고 中高校生 등 그리 高級한 機能이 必要치 않는 機種에서는 意外로 人氣가 있다 한다.